

지역 소식

4대 가계도 완성,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단순한 방법 -나주 지부 청소년들, 4대 가계도를 완성하다-

러 셀 엠 벨슨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이스라엘 시온 군대의 일원으로 '이스라엘의 집합'에 함께하도록 반복하여 말씀했다.("이스라엘 시온 군대,"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청소년들이 조상을 기억하고, 그들이 성전 의식을 받도록 돕는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때, 청소년들은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다.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일은 자신의 4대 가계부를 완성하는 단순한 활동으로 지금 시작할 수 있다!

광주 스테이크의 나주 지부는 지난 8월 한 달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집중하는 달로 정했다. 이 활동을 추진한 장로정원회 회장단의 운영통 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소홀했던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다시 집중해 보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성인 회원들은 물론이고 지부의 청소년들도 주체적으로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8월 한 달간 집중해서 가족 역사 사업에 매진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장로정원회에서 제시한 큰 목표에 따라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은 '4대 가계도 완성하기' 모임을 위해 줌으로 모였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4대 가계도를 완성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의식 카드를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청소년들은 준비물로 각자의 족보를 챙기고 줌에 접속했다. 청년 회장 안하은 자매는 "아직 족보를 보는 방법을 모르는 청년들도 꽤 있었습니다. 우선 족보를 보는 방법을 함께 살펴본 뒤, 족보를 보면서 가계도에 조상의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과 돌아가신 조상의 의식 카드를 인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청소년들은 배운 대로 직접 조상의 이름과 정보를 입력했다. 부모님의 가계도에서 돌아가신 첫 조상의 개인 번호를 복사하여 자신의 가계도에 붙여넣기를 하는 간단한 방법도 배운 뒤, 조상들의 의식에 대한 현황도 자신의 가계도에 입력했다.

"가족 역사 사업 관련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들의

호응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주면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모임은 30분 정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할애해서 재밌게 모임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가족 역사 사업은 부모님이나 교회의 어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4대 가계도를 완성하며, 가족 역사 사업은 생각보다 쉽고 재밌는 활동이라고 인식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활동에 참여한 고2 서영서 자매는 "가족 역사 사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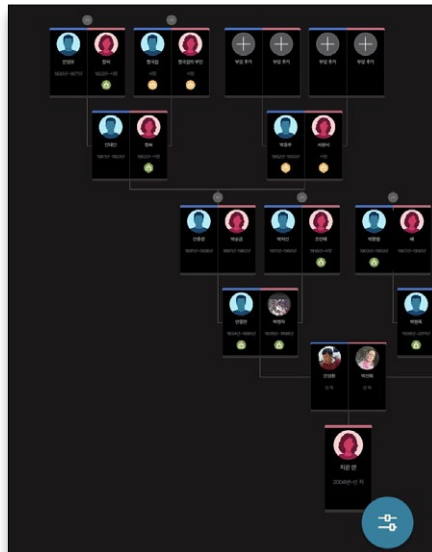
참여하며 조상 중에 어떤 분들이 대리 의식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찾아가니 꽤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작고 단순한 노력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고2 청년 안지은 자매 역시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며 느낀 점을 나누었다. "4대 가계도를 완성하며 저의 조상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족보를 보는 방법을 배우고, 족보에서 조상들의 정보를 찾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더 많은 조상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대신해 침례를 받고, 그들이 주님의

결로 돌아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업을 도움으로서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주 지부 청소년들의 비어 있던 4대 가계도가 모두 완성되었다. 향후 성전이 다시 열리면, 인쇄한 조상의 의식 카드를 가지고 함께 성전을 방문할 예정이다. 안하은 자매는 이렇게 간증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조상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이 정말 주님의 청소년 대대의 일원이며,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전 의식에 대한 소망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다 함께 성전 의식을 받을 날을 고대합니다." ■



안지은 청년의 완성된 4대 가계도

내 인생에 있어 손꼽히는 특별한 날

20 21년 3월 6일에 대한민국 서울 성전에서 김단이 자매와 박지윤 자매는 자신을 위한 개인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았다. 두 자매는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성전 의식을 받는 자신들과 의식을 도와줄 친구 가족만이 함께할 수 있었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김단이 자매는 그날 저녁 일기장에 “내 인생에 있어 손꼽히는 특별한 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

김 자매와 박 자매는 교회에 들어 오기 전에 자녀들을 통해 교문 와드의 김미정 자매와 먼저 인연을 맺었고, 이후 교문 와드의 여러 활동 모임에 참여하면서 침례의 물가까지 나아올 수 있었다. 성전 의식을 준비했던 과정을 회상하면서 박 자매는 “침례를 받고 1년이 되어갈 때쯤, 감독님과 와드 회원들이 성전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조금씩 성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키우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한다.

개인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기 몇 달 전, 박 자매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대리 의식인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기억한다. “성전 안의 침례 의식실이 이렇게 포근하고 좋은데 해의 왕국실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던 김 자매는 성전 대리 의식에 참여하는 대신 성전에 위치한 가족 역사부에 들러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 배울 기회를



왼쪽부터 김단이 자매, 김미정 자매, 박지윤 자매

가졌다. 두 사람은 이날의 경험을 통해 성전은 주님의 영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임을 알게 되었고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성전준비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두 자매가 개인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기로 결정할 당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한민국 성전이 더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교회에서는 이 기간에도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마침내 2021년 3월에 김단이 자매와 박지윤 자매는 성전으로 향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성전에 도착하여 성전 문을 열었을 때 하얀 성전복을 입고 그들을 맞이하는 성전 봉사자의 모습은 마치 천사들이 자신들을 반겨 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며 몽클했던 그날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긴장한 우리를 위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방역 부분도 철저히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성전 추천서를 확인하고, 의식복을 갈아 입은 두 자매는 예비 의식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며 “웬지 주님이 잘 왔으며, 저를 안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세상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받고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전한다. 코로나로 인해 아주 소수의 인원만이 함께했던 그날, 두 자매의 의식 도우미로 성전 의식에 함께 참여했던 교문 와드의 김미정 자매는 “두 분의 자매님을 알게 된 이후로 늘 소망하고 꿈꿔 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을 받는 내내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날의 감동과 기쁨은 제 인생에 있어 선물과도 같은 하루였습니다.”라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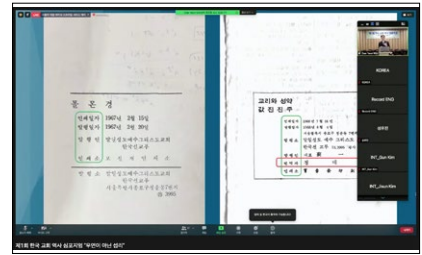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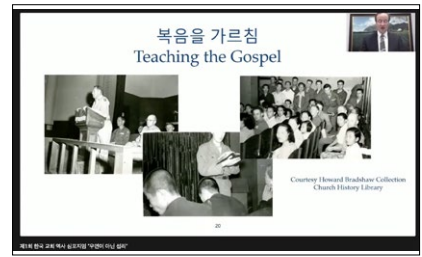
그날에 느낀 주님의 사랑과 봉사자들의 친절은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을 울렸다. 지금도 성전에서 여전히 개인 의식만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김단이 자매와 박지윤 자매는 성전 의식을 받았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언젠가라도 다시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매일 매일을 준비하겠노라고 다짐한다. ■



헬핑 핸드즈 활동 참여 후에 함께 찍은 사진

제1회 한국 교회 역사 심포지엄

우연이 아닌 섭리, 김호직 박사 침례 70주년 및 교회 초기 개척자를 기리며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에 “제1회 한국 교회 역사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그간 한국 교회의 역사가 교회 잡지 및 홈페이지에 실린 것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역사를 재조명해 보는 심포지엄 형식의 행사는 전례가 없었다. 또 올해는 한국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놓은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인 김호직 박사의 침례 70주년이기도 해서 이 행사가 더욱 뜻깊었다.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뿌리내리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자 기획되었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존 에이 맥쿤 장로가 이 행사의 감리자로서 함께했다.

이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한국 땅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며 “우연이 아닌 섭리”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되었다. 북 아시아 지역의 교회 역사 고문을 비롯해 한국 교회 역사 고문 등 다섯 명의 발제자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발표했으며, 참여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준비된 모임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았다.

시간	주제	발표자
10:00 ~ 10:20	기초 연설	지역 회장단
10:20 ~ 11:10	1.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종교의 자유	권영준

시간	주제	발표자
11:10 ~ 12:00	2. 한국 성경 번역의 역사	이정은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50	3.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재단 법인 설립 과정과 그 의의	김대연
13:50 ~ 14:40	4. 주 예수의 군병들: 1950~1956년, 한국에서 교회의 토대를 놓다	클린턴 디 크리스티슨
14:40 ~ 15:30	5. 한글 몰문경 번역의 초기 역사	정태걸

첫 번째 발제자로 발표를 시작한 권영준 장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짧게 설명한 뒤에 구체적인 재판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사법 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하는 국가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고등학교에서 기독교 사상을 교육하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지, 종교적 신념으로 징집을 거부할 때 이를 형사처벌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실제 판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영준 장로는 그의 발표를 마치면서 선택 의지를 행사해 신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확대해 나가면서도 관용의 정신을 살려 타 종교와 공동체를 배타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정은 형제는 역사적 사진과 기록들을 바탕으로 성경이 우리 나라에 전해진 과정과, 한글로 번역된 과정에 대해 나눠 주었다. 실존했던 인물들에 대한 정보와, 역사적인 장소,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를 종합하여 한글 성경의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의 종교, 문화, 생활상 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다음 발제자로 발표를 시작한 교회 역사 고문 김대연 형제는 한국 전쟁 이후 어지러웠던 국내의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정식으로 교회의 법인이 설립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입, 법인 신청서 제출 및 서류 보완 등 복잡한 법적 절차 과정과, 법인 허가가 어려웠던 당시의 문화,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이끄시고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과정을 보여 주었다.

네 번째 발제자 크리스틴슨 형제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외국의 후기 성도 병사들과 미국에서 침례를 받고 한국에 돌아온 김호직 박사가 함께 이 땅에 교회의 토대를 구축한 과정을 상세히 보여 주었다. 당시의 후기 성도 병사들 중에는 귀환 선교사, 대제사, 전직 감독단 등 다양한 신권 지도자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이후에 선교사, 선교부 회장, 성전 회장 등으로 부름받아 다시 한국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봉사하게 된다. 초기 교회의 조직이 구성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영어로 되어 있던 물문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 정태걸 형제는 번역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당했던 헌신과 어려움, 고민들에 대해 설명했다. 적절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대와 번역자 개개인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 주며 물문경 한국어 번역에 있어서의 특이점과 하늘과 지상 양쪽에서 임했던 도움에 대해 알렸다.

대회 이후에 정태걸 형제는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신앙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이에 감사하는 것”이라 전했다.

또한 교회 역사 고문인 김대연 형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적 자료는 소실되기 마련인데,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잊혀져 가던 한국 교회 초기의 역사적 자료들을 모으고 보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대연 형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말라기 4:6)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의 땅 위에 교회를 설립한 초기 개척자들과, 그들 위에 임했던 주님의 영에 대해 이해하고 기억할 때 한국 교회가 더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의 역사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한국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역사적 자료로 남기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위 심포지엄은 2021년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튜브로 생방송 됐다. 한국어와 영어 2개 국어로 진행됐으며, 120여 명의 한국을 사랑하는 국내외 회원 및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임에 참여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안내 : 전임 선교사 8명



구교준 장로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부산 선교부



김정운 장로
창원 스테이크
진주 와드
Washington DC



김준민 장로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부산 선교부



배노을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청라 와드
부산 선교부



**김철수 장로
민혜준 자매
(부부)**
전주 스테이크



**심재선 장로
최점순 자매
(부부)**
서울 서 스테이크



**정안채 장로
김영희 자매
(부부)**
부산 스테이크



서준 장로
울산 스테이크
방어진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유지수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1 와드
부산 선교부



조현빈 자매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서울 선교부



추하은 자매
울산 지방부
호계 와드
서울 선교부



이준영 장로
경기 스테이크
수지 와드
봉사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봉사 선교사 안내 : 총 7명 (부부 3쌍, 1명)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강 남 1 와드

감독: 구선모 형제(전임: 박원규 형제)